

로마서 8장 31-39절 (1)

- 읽을 말씀 롬 8:31-39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8장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영화가 아닌 양자 됨을 뜻한다는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다루면서 칼빈의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8장 31-39절도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님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단락은 칼빈이 주장하는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니다!

1)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종결된 문제대!

왜냐하면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구절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인의 교리가 틀이 아닌 이상 바울이 여기서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2) 전통적인 것은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해석이다.

전통적인 해석은 8장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영화로 착각해서 31-39절을 견인의 교리로 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영화가 아니라 양자 됨을 뜻하므로 31-39절은 칼빈이 주장한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3) 이 단락은 견인의 교리가 아니라 고난을 다뤘다!

로마서 8장은 18절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1-17절)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18-39절)에서는 고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주제전환이 일어날까요? 신자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배교하지 않아도 의미가 없으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그것을 헛되게 할 수 있는 고난을 다룬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서는 여러 황제들이 박해자였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8장 31-39절은 고난을 주제로 하는 후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대적, 고발, 정죄'라는 표현은 모두 박해와 관계있는 단어들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35),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3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단락이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강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눅 8:13)"**에서 나오듯이 고난은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위 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믿다가" 배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은 믿고 구원받은 것을 시점으로 박해가 오는 시기가 다르고 그때 배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했다고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세의 징조를 다루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고 하셨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한편, 성경에는 이 외에도 구원받은 자가 배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성구들이 있습니다(마 10:33, 39; 눅 12:4-5, 14:26-27; 담후 2:12, 히 10:38, 계 2:10). 이런 고난에 대한 구절들에 의하면,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도 배반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 심지어 칼빈의 견인을 믿는 목사님들 중에도 배교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

니다.

더구나, 로마서 8장에도 같은 맥락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17)**"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영광 즉 궁극적인 구원인 영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주제로 말하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2) 이 단락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한 고된 여정!

1) 첫 해석 - 막연하고 기본적인 이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7-29)”에서 보듯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단락도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견해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6-37)**"가 일정 수준 뒷받침해줍니다.

2) 두 번째 해석 - 매력적인 견해!

28절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선택과 관련 있는 표현입니다. 부르심이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1:26-29, 벤후 1:10). 이 단락 바로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29-30)**"도 예정입니다. 그 뒤 31-39절이 나오고, 바로 뒤가 예정을 주제로 하는 로마서 9장입니다. 게다가, 11장에서도 예정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단순히 견인이 아니라 '예정'으로 주제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고, 모든 신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주제전환이 일어난 이유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고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서서히 예정으로 주제전환이 일어나고, 31-39절은 선택된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뿐 아니라 예지예정의 관점에서조차도 선택된 자들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견인의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락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세 번째 해석 - 바른 해석이라고 착각했던 견해

이 단락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리차드 이비 박사의 사후체험 간증에서 "내가 아는 대로 사울이 내 빛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돌에 맞고 그리하여 내가 그를 이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라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에 따르면, 바울이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단지 박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고난과 박해를 직접 겪었습니다(고후 11:23-27). 그러나 이것들이 바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 5:10-12, 살전 1:4-7).

그래서 35절은 환난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8-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 나눔과 적용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한 시련과 역경들이 나의 믿음과 삶에 미친 영향들을 나누어 봅시다.